

보도 일시	2023. 2. 28.(화) 조간 2023. 2. 27.(월) 11:00	배포 일시	2023. 2. 27.(월) 06:00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심규석 (044-200-5846)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 선박사고 주의하세요!

- 해수부, 농무기 및 선박 통항량 증가 대비 안전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봄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큰 일교차로 인해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추락 등의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선박 충돌·전복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 봄철 유형별 사망·실종('18~'22): 안전사고(57%) > 충돌·전복(33%) > 화재·폭발(7%)

이에 해양수산부는 ▲ 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 등 3대 인명피해 사고 중점관리, ▲ 여객선, 어선·레저선박 등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농무기·성어기 대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우선, 해상추락·실족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승선원 사망·실종 시 선박 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1인 조업어선 350여 척을 대상으로 편의성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침수 등 여객선 비상 상황 시 승객이 신속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보관 위치 및 관리방안 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인증심사 대상 추가

또한, 충돌·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내비 서비스 취약해역(82개 기지국) 및 음영구역(8개 기지국)을 대상으로 안테나 등 기지국 장비를 증설·보강하고,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구조신호(SOS) 접수, 상황전파, 현장 대응 등 비상 대비 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사용 증가에 따른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카페리 선박을 대상으로 차량 구분적재, 소화 방법, 선원훈련 등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2.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먼저, 바다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160척)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장비, 기관설비, 화물 고박상태, 비상 대응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여객 수송이 재개*되고 있는 국제여객선(23척)에 대한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 한·러 항로 1척('22.8~), 한·일 항로 7척('22.10~), 한·중 항로 15척(미정)

또한, 봄철 성어기를 맞아 낚시객 이동이 잦은 항·포구 운항 낚시어선(430여 척) 및 연근해어선(시·도별 1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선원 선내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업종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등 컨설팅 실시

한편, 레저선박(100여 척)의 운항 안전성 및 종사자 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계 제한 또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상 교각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교각 접근 시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해로드’ 앱 기능도 개선한다.

* 전국 203개소 대상 해역별 특성을 고려, 200m~1km 이내 접근 시 알람 발생

3. 봄철 위험요인 대비 및 안전문화 확산

농무기 경계 소홀 및 줄임 운항 근절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인·방제선(27척)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안전 당부 메시지를 송출한다. 해양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유물 감김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연안의 항행장애물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장 대응세력 확대(예인선→어선, 구난선 등 추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안전 분야 전문가(8인)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어선 등 취약선박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전국 12개 해양안전 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을 계기로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 해양수산분야 안전교육 체계 진단, 정책제언, 개선권고, 교육강사 초빙 등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수협·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수산업단체 등 참여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그간 다각적인 안전대책 추진성파로 ‘21년 이후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어선 전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봄철에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물론 일선 현장의 종사자까지 모두가 해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참고 1

현장 점검 사진



<어선 현장안전점검>



<어선 현장안전점검>



<나홀로선박 구명조끼 보급>



<해양안전 현장 캠페인>



<화물선 퇴선훈련점검>



<여객선 화재훈련 점검>

참고 2

2023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요약)

□ 사고현황 및 위험요인('18~'22 통계분석)

- (인명피해) 해양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실종자(538명) 중 약 25% (136명)가 봄철*에 발생, 그중 유형별로는 안전사고**가 최다

* 가을(159명, 30%) > 겨울(149명, 28%) > 봄(136명, 25%) > 여름(94명, 17%)

** 안전사고 78명(57%), 전복 27명(20%), 충돌 18명(13%)이 전체의 90%를 차지

- (위험요인) 성어기 및 행락철을 맞아 선박 통항량 및 이용객이 늘고, 큰 일교차에 따른 안개 발생빈도*가 대폭 증가

* 부산, 인천 등 5대 항구 최근 3년 평균 안개일수: 겨울철 2.8일 → 봄철 6.4일

□ 주요내용

① 3대 인명사고(①안전사고/②충돌·전복/③화재) 중점관리

- (안전사고) 선내 작업안전분야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나홀로 조업선 구명조끼 보급** 및 여객선 구명조끼 관리·보관체계 개선***

* 추락·질식 등 안전사고 사망 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인 조업어선(350척) 대상 성능개선(무게·부피 ↓/활동성 ↑)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 비상 시 신속한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최적 비치방안 등 마련(전수조사·연구용역)

- (전복·충돌) 바다내비 통신품질(LTE-M) 개선*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 실시, 전복 시 생존시간 확보를 위한 산소공급장비 보급***

* 음영(8)·취약(82)구역 해소를 위한 기지국 신설 및 장비(안테나 등) 증설 등(3월~)

** 서비스 중단, 구조신호(SOS) 발생(우리부-해경청 연계) 등에 대비한 모의훈련(5월)

*** 소형어선(에어포켓 내 구조대기자용) 산소공급 구급세트 보급(KOMSA/100척/4월~)

- (화재) 전기차량 배터리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연근해어선 노후엔진(400척) 교체 및 소방설비(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설치 지원

* 카페리 선박내 전기차 구분적재, 배터리 화재 소화방법·소화훈련 등 지침 마련(5월)

② 취약선박(여객선·어선·레저선박) 안전관리 강화

- (여객선) 연안여객선 민·관합동 전수점검(160척) 및 24시간 모니터링*, 국제여객선(23척) 여객수송 재개**에 따른 중점점검***

* 항로이탈, 선속감소, 기관고장 등 이상확인 시 즉시 호출·대응(KOMSA 운항상황센터)

** 한·러 1척('22.8), 한·일 7척('22.10), 한·중 15척(미정) / *** 구명·소화설비, 여객 안전관리, 화물고박상태, 선체정비실태, 비상대응훈련 등(4~6월)

- (어선) 성어기 대비 연근해어선(시·도별 100척) 및 낚시어선(약 430척, 전체의 20%) 합동점검*, 어선원 안전·보건체계** 구축 추진

* 고용노동부·해경청·지자체·수협·KOMSA 등 민·관합동 안전점검(4~6월)

** 선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관리감독자 지정 등(「어선안전조업법」 개정)

- (레저선박) 이용객이 많은 마리나선박(100척, 4~6월) 대상 안전점검*, '해로드' 앱 교각충돌 알람 및 입·출항신고 기능(해경청 연계) 신설

* 엔진·구명설비, 기상·운항밀집도 사전확인 등 점검(부산·마산·평택 등 운항선박)

③ 봄철 위험요인(농무기·성어기) 대비 및 안전문화 확산

- (농무·통항증가대비) '낚시海' 앱 재난알림 신설, 항로표지시설(5,654기) 특별점검, 안전문자 송출* 및 부유물감김 예방체계** 개선

* KOEM 소속선박(27척) 전광판 활용, 안전수칙(경계철저, 줄음주의 등) 준수 계도

** 대응세력 확대(예인선→어선, 구난선 등 추가), 조직구축, 항행장애물정보 DB화 등

- (교육·캠페인) 자문단*을 통한 취약선박(어선 등) 안전교육 내실화, 섬주민·여행객 대상 안전교실** 운영,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 분야별 전문가(8인)로 구성 / 안전교육체계 진단, 정책제언, 특강 등 수행(3월~)

** 여객선터미널 대합실 이용,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 실시(4~5월)

***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계기(전국 12개 해양안전실천본부)